

## ○ 갈뱅의 성서해석 원리와 방법

손석태 ≪ 개신대학원대학교 총장 / 철학박사

기독교의 종교개혁은 개혁자들이 성경을 발견하고, 새로운 성경해석을 도입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개혁자들은 그들의 개혁의 사상과 개혁 작업의 기초를 성경에서 이끌어 내었다. 그들은 중세의 성경해석 원리와 방법과는 다른 보다 성경적인 해석 원리를 발견했고, 이것을 통하여 개혁신학의 기초를 쌓고, 체계를 세워 갔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성경해석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제네바의 갈뱅은 보통 조직신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의 『기독교 강요』는 그의 성경주석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읽히고 인용되며 사용되고 있다. 심지어 오늘날 『기독교 강요』는 마치 조직신학자들의 전유물처럼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갈뱅은 그의 저술생활 25년 거의 대부분을 성경주석에 바쳤다. 그래서 강요에 비교할 수 없는 거의 성경 전권에 걸친 방대한 분량의 주석을 집필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은 루터를 “성경번역의 왕”이라고 칭하고, 갈뱅을 “성경주석의 왕”(the king of commentator)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sup>1)</sup> 갈뱅은

1)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I (Grand Rapids: Eerdmans, 1910,

1539년 라틴본의 서문에서 강요의 저술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책에서 나의 목적은 신학도로 하여금 성경을 연구하도록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데 있다. … 이처럼 길을 닦았으므로 앞으로 내가 출판하는 성경의 주석들은 교리에 대한 긴 토론이나 평범한 것을 부연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항상 그들을 압축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sup>2)</sup> 따라서 강요는 성경해석의 길잡이가 되도록 저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깔뱅은 강요와 주석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가 깔뱅의 성경해석의 원리를 파악하기 위하여 강요를 읽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깔뱅의 성경해석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종교개혁 이전의 성경해석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 1. 중세의 성경해석

주후 600-1500년의 중세라고 하는 기간은 교회가 성경해석을 주관하는 시대였다. 루터의 말대로 성경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결정하는 시대였다. 이 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성경해석 방법은 주로 영해(allegorical interpretation)였다. 이들은 성경에는 문자적 의미, 풍유적 의미, 도덕적 의미, 신비적 의미 등 4중의 의미(Quadruga)가 있다고 믿고 이것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의 문자적인 의미는 역사적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키며, 풍유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도덕적인 의미로는 사람의 영혼을, 그리고 신비적이고 종말론적인 의미로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

1948), 524.

2) J. K. Mickels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entaries of John Calvin and His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And the Bearing of the Relationship on the Study of Calvin’s Doctrine of Scripture,” *Gordon Review* (1959), 155-57.

해석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영해를 배척했다. 이러한 영해를 마귀의 장난이라고 했으며, 하루투니안은 “갈뱅은 성경의 영해를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다.<sup>3)</sup> 갈뱅은 에라스무스, 루터, 멜랑히톤, 그리고 부처 등의 저작에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이들 중 어느 누구의 방법도 온전히 추종하지 않았다. 갈뱅은 성경해석의 원리에 있어서 중세의 전통이나 개혁자들과는 다른 좀 더 건전하고 새로울 뿐만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도 바쁜 목회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단명료한 주석의 필요성을 느끼고 새로운 집필을 시도한 것이다. 그렇다면 갈뱅의 성경해석 원리는 어떤 것인가?

## 2. 갈뱅의 성경해석 원리

첫째로 갈뱅의 성경해석에는 전제가 있다. 갈뱅에게 있어서는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본질 문제가 성경해석에 우선한다. 갈뱅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위하여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본질을 전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갈뱅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쓰신 책이라는 성경의 이중 저작설을 주장했다. 즉 성경은 성령의 도구인 선지자를 통해서 왔으며,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받아 쓰인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성경의 영감은 인간 저자의 개성을 무시하고 일어나지 않으며 인간 저자의 개성이나 스타일이 성경에 남아 있다고 믿었다.<sup>4)</sup> 그래서 그는 성경해석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했다. 갈뱅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만이 말씀에 대한 가장 적합한 증거자가 될 수 있으며

3) Joseph Haroutunian, "Introduction," *Calvin: Commentaries*, Vol. 23,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Philadelphia: Westminster), 23, 28.

4) David L. Pucket, *John Calvin's Exegesis fo the Old Testament*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29.

(강요 I.7.4), 해석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해석되고 강론되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따라서 그는 “성령의 조명이 없이 단순히 말씀만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유익도 없다”고 말한다.<sup>5)</sup> 따라서 갈뱅에게 있어서 해석자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이며, 성경해석 능력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성경해석자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자여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라야 된다고 생각했다. 성령의 인도가 없는 성경해석이나 설교는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이해이다.

또한 갈뱅의 성경해석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점은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이다. 갈뱅은 강요 II.x.2에서 “모든 족장들과 맺은 언약은 그 본질과 실재에 있어서 우리와 같아서 실제로 둘은 하나이며, 같은 것이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이며, 그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이다. 따라서 갈뱅은 모든 성경해석의 원리는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과 연속성이라는 전제하에 출발한다.

둘째로 갈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석의 원리는 성경의 저자가 의도하는 의미를 찾는 것이다. 갈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해석자의 주된 미덕은 간단 명료성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 해석자의 임무인 만큼, 저자가 의미하는 바로부터 멀어질수록 해석자는 그의 목표로부터 멀어져 해매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sup>6)</sup> 따라서 갈뱅은 그의 주석에서 항상 저자를 언급하고 저자가 성경 이야기나 논지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있는지를 밝힌다. “모세가 확신하는 바는 …”(창 37:1) 혹은 “모세가 계속하기 전에 …”(창 38:1) 등이

5) *Institute of 1541*, Vol. II, p. 29.

6)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Romans* (Grand Rapids: Baker, 1970, rpr.), xxiii-iv.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갈뱅은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찾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면을 고려했다.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과 사람의 이중적인 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해석에 있어서도 하나님, 곧 성령이 의도하는 의미와 인간 저자가 의도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려했다. 그래서 갈뱅은 다니엘 12장 4절에서 “나는 성령은 여기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는 어디서나 성령이 의도하는 바를 드러내서 그 참 의미를 밝히려 했으며, 갈뱅에게 있어서 참 의미는 바로 성령의 의도하는 바에 부합하는 의미라고 믿었다.

셋째로 갈뱅의 성경해석의 원리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Scripture interpretes Scripture*)는 것이다. 이것은 문자적인 해석의 중요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언이나 비유, 혹은 은유, 모형이나 실형 등의 해석에 있어서 확고한 그의 철학을 표명하는 말이다. 루터는 “성경은 그 자신이 해석자이다.”(*Scriptura sui ipsius interpres, Scripture is its own interpreter*)라고 말했다. 이것은 마치 성경이 일정한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되기 쉽다. 그러나 갈뱅에게 있어서는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는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없고, 불분명하거나 어려운 성경 구절은 명료하고 쉬운 성경 구절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령이 신구약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내적인 통일성이나 일관성이 있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리가 가능한 것이다.

넷째로 기독교론적인 해석이다. 갈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을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누구든지 이로부터 벗어나서 일생을 노력하고 연구한다 해도 그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CR. 47:125) 갈뱅에게 있어서 성경해석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여,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찾으려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독교론적 해석이다. 그는 시편 109편의 주석에서 “비록 다윗이 여기서 그가 당한 부상을 불평하고 있지만 그림에도 그는 모험적인 인물임으로 시에 표현된 모든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이신 성도들에게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적고 있다. 갈뱅의 이러한 시도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의 가르침이며(막 12:36), 신약 저자들이 사용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다섯째로 구속사적인 해석이다. 갈뱅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본문의 흐름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맥락에 대한 의식은 비단 성경의 문법적인 혹은 문화적인 면에서만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해석으로 확대된다. 어떤 사건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역사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 역할이 무엇인가를 예리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파헤치려고 한 것이다. 그는 항상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본문이나 사건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 갈뱅이 이처럼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려고 한 것은 그의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흐르는 언약 사상을 전제로 한 것임에 틀림없다. 갈뱅에게 있어서 언약 사상은 그의 구속사적 해석의 기초이다.

### 3. 갈뱅의 성경해석 방법

갈뱅은 주석을 씌에 있어서 짧은 구절을 택하고, 거기의 중요한 단어를 풀이한다. 이때 그는 한 단어를 같은 저자가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나아가서 다른 저자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기술한다. 아울러서 그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이나 철학적 개념을 설명한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당대의 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었으며, 그가 Seneca

의 *De Clementia*를 주석하며 사용했던 방법이다. 그리고서 그는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나아가서 종교개혁시대의 논쟁에 적용하고, 로마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비평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갈뱅의 해석 방법의 특징적인 점이 무엇인가?

첫째로 간단 명료성이다. 갈뱅은 로마서를 주석하고 그의 선생 시몬 그리네우스에게 헌정하며 그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해석자의 주된 미덕은 간단 명료성에 있다.”<sup>7)</sup>고 말한다. 이러한 견해는 1557년에 발행한 시편 서문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켐블 등의 학자들은 갈뱅의 해석 방법의 특이성을 “간단 명료성”이라고 말한다.<sup>8)</sup> 갈뱅은 목회자나 신학도들이 그의 책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회자적 배려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둘째는 문학적 접근 방법이다. 한스 요아킴 크라우스는 “저자의 의도를 꾸준히 찾는 것이 갈뱅 주석의 특징이며 여기서 그의 방법론이 유출된다.”<sup>9)</sup>고 말한다. 갈뱅의 해석 방법은 바로 이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저자의 의도를 찾기 위하여 성경을 문학적으로 접근한다. 이를 다음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가) 그는 성경을 상황적으로 접근한다. 갈뱅은 저자의 의도를 알기 위하여 본문의 역사적, 지리적, 제도적, 문화적, 종교적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본문의 내용을 간추려 서술하고 그의 배경을 쓰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에라스무스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

7)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Romans*, xxiii-iv. Corpus Reformation (ed. Baum. Cuitz, Reuss; Brunsvigae: C. A. Schwetschke, 1872, 1872) 10/2. 402f. *Epistola* 191, 1953.

8) Richard Gamble, “BREVITAS ET FACILITAS: Toward an Understanding of Calvin’s Hermeneutic,” *WTJ* 47(1985):2.

9) Hans-Joachim Kraus, “Calvin’s Exegetical Principle,” *Interpretation* (1977), 8-18, 13.

(나) 그는 어원적으로 접근한다. 본문의 배경과 상황이 확정되면 갈뱅은 다음으로 본문의 참된 의미(Real Meaning)를 밝히기 위하여 어휘의 어원을 추적하는 작업을 한다. 예를 들어 시편의 “셀라”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영원히” 혹은 “참으로”라고 주장하지만 히브리 동사 “사랄”(sl, 들 어올리다)로부터 연유한 것으로 “노래하는 데 있어서 화음을 맞추기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다.”라는 뜻으로 번역 해석하고 있다. 또한 *mm*를 발음 하지 않고 “아도나이”로 대치하여 발음하거나 쓰는 것은 미신적이고 잘못된 것이며, 이 어휘는 분면 동사 “히야”(hyh, to be)에서 기원한 것으로 “그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만물을 붙드는 자”라고 주장한다. 갈뱅은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히브리어 어원에 대한 지식을 많이 활용했다.

(다) 그는 성경을 문맥적으로 접근한다. 갈뱅은 저자의 의도를 바로 알기 위하여 문맥의 흐름을 유의 깊게 살피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주석의 난제는 해석자가 그 본문의 문맥을 주의 깊게 살피면 설명이 되고 정확하게 해결이 된다고 말한다(*Inst.* III. xvii.xiv). 그는 히브리어의 어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강조하지만 어원을 확립적으로 본문의 번역이나 해석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 어원의 의미가 문맥에 맞지 않을 때는 그것을 채택하지 않았다(민 32:14). 갈뱅은 단순히 어휘의 문맥 속에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어떤 문장이나 사건의 문학적 맥락이나 역사적 맥락도 중요시 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의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를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말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말하고 이는 분명히 문학적, 역사적 문맥은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선지서를 해석하는 데는 역사적 문맥을 중요시 했다.

(라) 그는 모형론적 해석을 많이 사용하였다. 갈뱅이 영해를 배척한 이유는 그것이 본문의 문자적인 의미나 역사적인 의미를 무시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성경에 뿌리를 두고 교부들이 사용했던 모형론을 자주 사용하였다. 데이비스는 “모형론이 없었더라면 갈뱅이 오늘날과 같은



깎쟁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sup>10)</sup>라고 말할 만큼 깎쟁은 모형론적 해석을 많이 사용하였고 결국 모형론은 현대 성경신학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으며, 중세의 영해를 극복할 수 있었던 성경해석 방법의 하나였다. 깎쟁이 구약을 모형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기초는 신구약의 통일성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한 하나님께서 구약의 언약 백성들의 역사 속에 그의 발자취를 남겼다는 전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깎쟁에게 있어서 모형은 일종의 예언이며<sup>11)</sup> 모형론은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라는 관계 속에서 성립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구약성경의 안식일이나 유월절, 제사나 제사장등의 의식법은 모두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이나 심지어 다윗의 전왕 사울까지도 모두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다. 그리고 깎쟁은 모형론적인 해석의 정당성을 신약성경의 저자들에게서 찾았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시편 2, 22, 89, 110편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모형론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해석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마) 그는 연장된 해석(Extended Interpretation)을 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을 그리스도와 연계시키지 않았다. 반면 기독교인들은 예언을 한 선지자가 살던 시대와 그 예언이 주어진 특별한 상황을 무시했다. 깎쟁은 이것이 다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언의 이중 성취 개념을 주장했다. 하나의 예언은 신약의 그리스도에게로, 혹은 그 이후로 연장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깎쟁은 예언의 해석에 있어서 그 예언이 주어진 당대의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찾았으며, 그 다음에는 그것이 구약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찾으려 한 것

10) Thomas M. Davis, "Traditions of Puritan Typology," in *Typology and Early American Literature*, ed. Sacvan Berkovich (Amherst, Mass.: Univ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72), 38.

11) Pucket, 113-14.

이다. 따라서 갈뱅은 당대의 기독교인이나 유대인들보다 더 연장된 시각을 가지고 예언을 해석하려고 했다.

셋째로 비평적 접근이다. 갈뱅에게 성경비평은 현대 성경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료비평, 양식비평, 편집비평, 전승사비평, 혹은 정경적 비평 등의 고등비평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평은 당대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만일에 이러한 방법이 알려졌더라면 그는 단호하게 배격하였을 것이다. 갈뱅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본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정확한 텍스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본문 비평은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여겼다. 갈뱅은 또한 고등비평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갈뱅은 히브리서는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근거하여 베드로전서와 후서가 동일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사야나 다니엘서의 통일성을 무시하거나 저작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에게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온 성경에 대한 그릇된 정보나 지식을 비판하는 것이다.

## 결론

이상 갈뱅의 성경해석 원리와 방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의 성경해석에 대한 진지한 노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가 물려준 성경해석의 유산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계승되고, 우리들 가운데 숨 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그러나 한국의 개신교, 특히 장로교는 갈뱅의 신학과 신앙을 이어받았다고 말하면서 정작 성경해석에 있어서는 빗나간 점들이 많다. 성경 본문을 설교하지 않으며, 성경의 영감, 무오와 무위, 저작성, 통일성을 부인하고 갖가지 현대 비평법을 도입하여 성경의 해체 작업을 해왔다. 심지어 보수주의 사람들은 개혁자들이 배격했던 영해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어서 마치 중세로 심지어 구약시대로 돌아간 듯하다. 요

사이는 성경해석의 혼란기이다. 우리는 다시 깔뱅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 기본부터 새롭게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 교회의 개혁은 성경해석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손석태** 고려대학교(B.E.)를 나와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M.Div.)와 New York University(Ph.D.)에서 공부했다. 한국복음주의 구약학회 회장, 한국복음주의신학대학협의회 회장, 개혁신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개신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있다.